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음 11월 30일) 제171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계란 대란 이어 닭고기 수급도 '초비상'

AI 확산 육계 매몰처분돼 사육 마릿수 감소 본격화

병아리 생산량 감소 따라 내년 1월 육용계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7.7% ↓ 가격에 큰 영향 미칠 듯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닭고기 수급에도 빨간등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계란에 이어 닭고기 대란도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I 확산으로 육계가 대규모로 매몰 처분되면서 사육 마릿수 감소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1월 육계 사육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감소로 전년 동월보다 7.6% 감소한 7,185만 마리로 전망했다.

특히 AI 발생에 따라 49만마리의 종계가 매몰 처분되면서 내년 6월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전년보다 평균 10.8%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병아리 생산 감소에 따라 닭고기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월 도계 마릿수는 육용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월보다 7.7% 감소한 6,638만마리로 추정했다.

또한 2-3월 도계 마릿수도 병아리 생산 감소와 일식 제한 등으로 전년보다 각각 11.8%, 9.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전북도와 전주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KBS전주방송총국, 전북교육청, KT전북고객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는 27일 전주시 동산동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탄 6,000장을 기부하고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갖고 있다.

닭고기 수급 불안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하락세를 보이던 닭값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상승하기 시작해 2-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닭고기 공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1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1,499원)보다 20% 상승한 1,600-1,800/kg으로 예상했다.

2-3월 육계 산지가격도 전년보다 상

승한 1,800-2,000원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AI 확산에 따라 육계와 종계가 매몰 처분돼 점진적으로 닭고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면서 "차치 닭고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도 "아직까지 닭고기 판매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

만 당장 다음달부터 공급이 줄어들면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트에서 만난 한 주부는 "식구들이 닭고기를 좋아해 자주 사는 편인데 가격이나 식료품값 상승에 계란값까지 폭등해 부담이 되고 있는데 닭고기 가격까지 들쭉이 있어 걱정"이라며 한숨을 지었다.

/인재용 기자

돼지 간 이용 인공 간 제작 성공

우리나라에서 간 관련 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

특히 간암 등 난치성 간질환의 유일한 치료법은 장기 이식이지만 이식 가능한 공여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돼지 간을 이용해 인간의 장기와 구조·기능적으로 비슷하면서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이종이식용 인공 간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종이식용 인공 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이종이식 시 면역 거부 반응의 원인물질(이종항원)인 이식항원을 없앤 돼지 간 유래의 스키펴드를 제작했다.

또한 탈세포 스키펴드의 혈관 구조 내에 항응고(해파린/젤라틴 코팅하는 기법) 처리 뒤 재세포화해 생체에 이식했을 때 혈액이 응고(혈전형성)되는 시간과 혈액 흐름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이는 혈액응고에 관련된 인자들(THBS1, THBXAS, PLSCR1)의 기능(발현)은 낮아지고 간세포 유전자(ALB, CYP2E1, GPX1, HMGCR, LDLR, CDH1)의 기능(발현)이 높아짐에 따라 개선된 결과로 인공 간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탈세포 스키펴드 유래물질이 줄기세포를 간세포로 분화시키는 효율을 높이면서 간 기능을 증진함을 확인했다.

돼지 피부세포로부터 돼지 유도만능 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생성했고, 탈세포 스키펴드 유래물질이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간 분화효율을 높이는 것을 확인했으며 재세포화된 스키펴드의 간 기능도 향상됨을 확인했다.

앞으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이식환자의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간 분화세포로 스키펴드를 대체하고 합성해서 환자

에게 특화된 맞춤형 인공 간 개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유예, ‘누더기식’ 발표였다”

김승환 교육감, “국정화 작업 주도자는 밝혀지지 않아” 교육부 방침 비판

교육부가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유예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누더기식’ 발표라며 꼬집었다.

김승환 도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발표는 누더기식 발표라 할 수 있는데, 결론을 깔끔하게 내리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식으로 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1년 유예는 법적 폐기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폐기는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주도적으로 국정화 작업을 펼쳐왔는 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난) 국정교과서 작업 초반부터 이것은 정권교과서라는 말을 했고, 국가가 원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교과서였다”라며 “이는 정권교과서라고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맞고, 역사를 사유화하겠다는 아욕을 드러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체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나올까 생각해 보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혈세를 엄청나게 많이 낭비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종이조각이 날아다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국정교과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역사보조교재는 예정대로 편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 전북을 비롯해 4개 시도 교육청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다다랐다”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상관없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작업을 계속 할 것이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올해 정읍시정 결산 ▶ 관련기사 7면

전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개소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군산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

군산시가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최종 선정됐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우리나라 지역관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3~4개의 지자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핵심관광지로 집중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프로젝트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전주, 부안, 고창 등 4개 지자체가 하나의 권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코스명칭은 군산관광의 대표 테마인 ‘시간여행’을 입시적으로 적용하고 최종 명칭은 권역별 관광지의 다양한 매력을 담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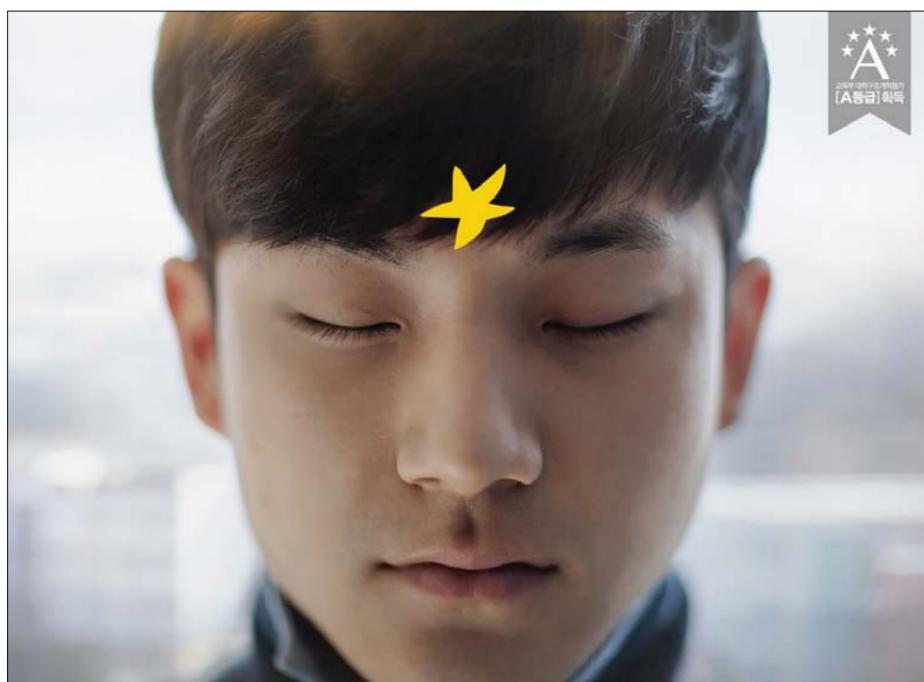
아울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7년에는 총 126억원(권역당 12억 6000만원)의 관광기금을 지자체에 보조해 관광환경정비, 관광네트워크 구

축,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한국관광공사 등에는 114억원의 민간보조를 통해 사업진단 및 컨설팅, 관광콘텐츠 확충, 홍보·마케팅, 평가, 모니터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은 관광객 유입량, 관광수용여건, 관광잠재력, 권역타당성 등 선정요건을 만족시키고, 그동안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광역시티투어버스 운영, 금강권관광협의회의와의 연계사업 추진 등 관광 광역화를 위한 군산시의 관광활성화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산시가 2017년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광역화를 통한 관광도시 군산으로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훈 기자



대학이 바로서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강조할 것입니다

[전주대학교가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주대학교는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해외 및 전담연계 봉사활동, 한일문화교류사업, 학생봉사단(나눔) 등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성실의 리더십을 갖춘 수석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2017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2016. 12. 31.(토) ~ 2017. 1. 4.(수) 입학지원실 063-220-2700~6 | 입학사정팀 063-220-3234~5